뉴스보다
쉽고 재미있는
통상이야기로
여러분과 통하는
세상을 엽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유튜브에서도
'통하는 세상'을 검색하세요!

웹진 <통상>
tongsangnews.kr

블로그 <세계로 통하는 세상>
blog.naver.com/tongsangnews

페이스북 <통하는 세상>
www.facebook.com/tongsangnews

산업통상자원부

통하는 세상 **통상**

2019 11월호
VOL.90

11
tongsangnews.kr

집중 조명 젊은 인구대국과 상생 틀 마련 신남방정책 큰 물꼬 텄다

초대석 윤원석 한컴그룹 해외사업 총괄사장

FTA 사용설명서 FTA 피해 돕는 무역조정지원사업

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

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자유무역과 경제협력 강화의 새로운 30년이 열린다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30th Anniversary

통상 통하는 세상
2019 11월호 Vol. 90
tongsangnews.kr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국가 / 발효 시기 / GDP 대비(%)

캐나다 2015년
1.99%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6년 **1.36%**

중미 5개국
2019년 **0.22%**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부분 발효

미국 2012년
2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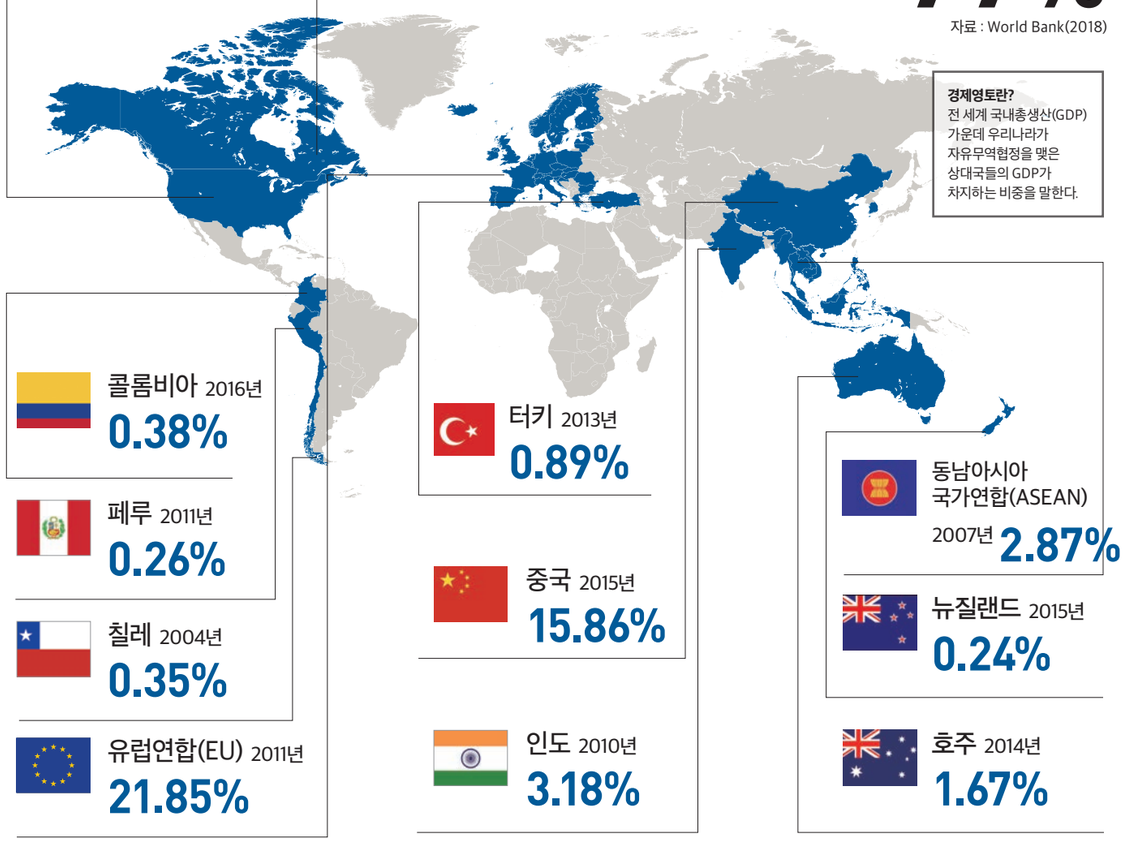
*55개국

우리나라 경제영토(FTA 발효 16개 협정)

전 세계 GDP 대비

77%

자료 : World Bank(2018)



경제영토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한눈에 보는 통상 관련 사이트

FTA 강국, KOREA	TradeNAVI	YesFTA	관세법령정보포털	FTA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www.fta.go.kr	www.tradenavi.or.kr	www.customs.go.kr	www.unipass.customs.go.kr	www.okfta.kita.net	www.exportcenter.go.kr

이달의 일정 무역, 통상 분야의 11~12월 일정을 소개합니다.

2019. 11 NOVEMBER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①②	2
3 학생 독립 운동의 날	4	5 ③	6 ❶	7 ④	8 입동	9
10	11 음 10.15	12 ❷	13 ③④	14 ❺	15	16 ⑤
17 순국선열의 날	18	19	20 ❻⑥	21	22 소설 ❼	23
24	25 ⑦❸	26 ⑧	27 음 11.1 ❾	28	29	30

국내 일정

❶ **2019 시니어 라이프 & 복지 박람회**
11. 06. ~ 11. 08. 고양
킨텍스 031-995-8048

❷ **통상정책 지역설명회**
11. 12. 대구, 11. 14. 부산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 044-203-4895

❸ **2019 첨단 필름 기술 산업전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코리아**
11. 13. ~ 11. 15. 수원
마이스포럼 031-388-6311

❹ **2019 국제 세라믹/신소재 및 응용기술전**
11. 13. ~ 11. 15. 서울
한국세라믹연합회 02-588-2497

❺ **2019 광주국제식품전**
11. 14. ~ 11. 17. 광주
광주광역시 062-611-2213

❻ **제1회 스마트공장구축 및 자동화기기전**
11. 20. ~ 11. 22. 고양
킨텍스 031-303-6000

❼ **제3회 통상정책 토론·논문대회**
11. 22.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 044-203-4896

❽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 25. ~ 11. 26.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02-3441-6062

❾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11. 27.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02-3441-6062

해외 일정

① **미얀마 양곤 국제 봉제기계 전시회**
11. 01. ~ 11. 04.
KOTRA 해외전시팀 02-3460-7297

② **2019 미국 포모나 서부 모델 항공기 전시회**
11. 01. ~ 11. 03.
Academy of Model Aeronautics 303-973-1209

③ **상하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
11. 05. ~ 11. 10.
중국국제수입박람회 한국사무소 02-6000-8125

④ **2019 자카르타 국제프리미엄소비재전**
11. 07. ~ 11. 09.
코엑스 해외전시팀 02-6000-8128

⑤ **에티오피아 국제 무역 박람회**
11. 16. ~ 11. 20.
African Trade Fairs +9714-351-7786

⑥ **베트남 호치민 섬유 의류 산업 전시회**
11. 20. ~ 11. 23.
Vietnam National Trade Fair & Advertising Company +84-24-3825-5546

⑦ **2019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
11. 25. ~ 11. 28.
DMG Event +971-4-438-0355

⑧ **2019 독일 뉘른베르크 자동화 시스템 및 부품 전시회**
11. 26. ~ 11. 28.
KMesago Messe Frankfurt GmbH +49-711-61946-829

2019. 12 DECEMBER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①	2 ②	3 ❶③	4 ❷❸	5 무역의 날 ❹❺	6 ❻	7 대설
8	9 ❼	10 ④	11 음 11.15 ⑤	12	13 ❽⑥⑦	14
15	16	17	18 ⑧	19	20 ❾❿	21
22 동지	23	24	25 성탄절	26 음 12.1	27 원자력의 날	28
29	30	31				

국내 일정

❶ **2019 인천 블록체인 서밋 & 미래박람회**
12. 03. ~ 12. 04. 인천
인천신문,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070-4875-4500

❷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컨퍼런스**
12. 04. 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2138-0163

❸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 SOFT WAVE 2019**
12. 04. ~ 12. 06. 서울
소프트웨이브 조직위원회 02-2168-9332

❹ **2019 테크핀 아시아**
12. 05. ~ 12. 06. 고양
테크핀 아시아 031-810-8114

❺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
12. 05. 서울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02-6000-5224

❻ **2020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
12. 06. ~ 12. 07. 서울
㈜조선일보사 02-724-5114

❼ **제3회 온라인 스타트업 박람회**
12. 09. ~ 12. 15. 서울
오픈부스 010-7467-0135

❽ **2019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12. 13. ~ 12. 14.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02-6000-0820

❾ **2019 부산 사인·인쇄산업 박람회**
12. 20. ~ 12. 22. 부산
㈜동아전람 02-780-0366

❿ **제3회 부산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
12. 20. ~ 12. 22. 부산
㈜동아전람 02-780-0366

해외 일정

①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
12. 01. ~ 12. 06.
KOTRA 의료서비스팀 02-3460-7623

②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
12. 02. ~ 12. 06.
EXPOCENTRE +7-499-795-39-43

③ **2019 중국 상하이 마린텍 차이나**
12. 03. ~ 12. 06.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051-972-6475

④ **2019 인도 방갈로르 건설기계 및 건축기술 전시회**
12. 10. ~ 12. 14.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91-44-42444564

⑤ **베트남 호치민 VIMAF 기계산업전시회**
12. 11. ~ 12. 14.
코엑스 02-369-7828

⑥ **제17회 상하이 국제 금융 박람회**
12. 13. ~ 12. 15.
VNU Exhibitions Asia, Shanghai Money Weekly Media Co., Ltd. +86-21-6195 6041

⑦ **2019 중국 베이징 국제 보석 전시회**
12. 13. ~ 12. 17.
Beijing Haiming Huibo Exhibition Co.,Ltd. +86-532-85013037

⑧ **일본 도쿄 로봇 전시회**
12. 18. ~ 12. 21.
일본로봇협회, 일간공업신문사 +81-3-5644-7221

*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통하는 세상 **통상**

CONTENTS 2019 11월호 **VOL.90**

02
FT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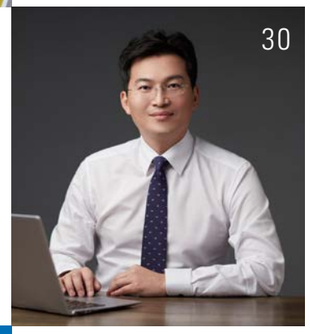
03
이달의 일정
11~12월의 주요 무역·통상 일정

COVER STORY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자유무역과 경제협력 강화의 새로운 30년이 열린다

06
미리보기
지난 30년을 넘어 새로운 30년의 미래 비전 제시

08
깊이보기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도약을 위한 과제, 제2, 3의 베트남이 나와야

14
마주보기
날개 단 한·아세안 경제협력 '함께하는 미래' 새 판 짠다



발행일 2019년 11월 1일(통권 제90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문의 044-203-4893)
발행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주)성우애드컴

<통상>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은 웹진(tongsangnews.kr)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
초대석
윤원석 한컴그룹 해외사업 총괄 사장

24
집중 조명
젊은 인구대국과 상생 틀 마련
신남방정책 큰 물꼬 텄다

28
한울타리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30
해외무역 지상 중계
(주)올스웰

32
무역 지식인
WTO 보조금-상계관세 협정

34
FTA 사용 설명서
FTA 피해 기업 재기 돕는 무역조정지원사업

36
응답하라 무역정책
해외시장 개척에 앞서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면?

38
한류, 꽃피우다
세계가 곧 나의 무대, K뮤지컬의 재탄생

40
세상을 보는 눈
나는 지금 여기, 치앙마이 '아재로드'

44
교섭사 속 그날
만남은 적었으나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

46
현장 스케치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 세미나

48
무역 소식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외

50
소통 마당
독자 후기, 通하는 낱말 퀴즈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30년간의 협력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3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아세안은 11월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상생번영의 동반자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것이다.

지난 30년을 넘어 새로운 30년의 미래 비전 제시

1967 아세안 창설

1989 한·아세안 부분 대화 관계 수립

1991 한·아세안 완전 대화상대국 관계로 격상

1993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FTA) 창설

2007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KFTA) 발효

2009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20주년 특별정상회의

2012 주아세안대표부 설립

2014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 특별정상회의

2018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출범

2019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 특별정상회의

특별정상회의 통해 상생과 번영의 교두보 마련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989년 부분적 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s)으로 관계를 시작한 후 발전을 거듭해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s)으로 격상됐다. 이후 2010년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 선언'을 함으로써 또 한 번의 진전을 이뤄냈다. 그리고 2019년,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 11월 25일과 26일 부산에서 세 번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다. 연이어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의 관계가 경제협력을 넘어 상생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특히 아세안과 공식 대화 관계를 맺은 국가 중 정상회의를 세 번 개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갖는 의미가 크다. 아세안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5대 교역 대상이자 5대 투자국이지만, 유럽·미국·중국 등에 비해 교역 및 투자의 규모가 작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세안 대화상대국 10개국 중 최초로 본국에서 세 번째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세안이 우리나라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세안

명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인구	6억5,429만 명
면적	약 448만㎢
GDP	2조9,863억 달러
총교역량	2조8,596억 달러 (수출 1조4,281억 달러, 수입 1조4,314억 달러)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018년 기준)

가까운 이웃을 넘어 미래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한국의 가까운 이웃인 아세안은 우리나라 국민의 제1위 방문 지역이다. 2018년 기준 한국과 아세안 상호 교류 인원은 1,144만 명에 육박하며, 이 중 아세안의 한국 방문객이 246만2,000명, 한국의 아세안 방문객은 898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아세안은 외교,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대상이자 투자 지역인 아세안과의 교역액은 2018년 기준 1,597억5,200만 달러에 달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다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임이 틀림없다. 또한 아세안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지지하는 만큼 한반도 평화정착의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남북한 모두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지난 30년간 한·아세안의 관계가 빠르게 발전한 만큼, 신남방정책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4강 수준'의 목표도 머지않아 도달할 것이다.

아세안은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 GDP 규모 세계 5위, 교역 규모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은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수천개의 한국 기업과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아세안 사회의 중요한 공동체 일원이 됐다.

글. **임성남** 주아세안 대사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도약을 위한 과제 제2, 3의 베트남이 나와야

아세안(ASEAN) 10개 국가 정상이 이번 달 부산을 방문한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번 정부 들어 우리가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외교 행사가 될 것이다. 1989년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올해로 30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작년까지 스무 차례, 특별정상회의가 두 차례 열렸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한·아세안 센터가 출범했으며, 부산에는 한·아세안 문화원이 개원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2017년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신남방정책을 표명했다. 아세안은 지난 30년의 세월을 거쳐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신남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가까워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아세안의 경제적 위상

2018년 전 세계 투자는 전년도에 이어 크게 줄었지만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54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상회하는 액수다. 세계의 투자는 이제 아세안을 향하고 있다. 아세안은 세계 3위의 인구, 세계 5위의 GDP 규모, 세계 3위의 교역 규모를 갖는 거대 공동체다. 또한 중산층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30세 미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역동적인 경제권이다.

2017년 아세안 전체 GDP는 5.3% 성장을 기록했다. 수치상으로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지만, 아세안 국가 중에서 이미 고소득 국가에 진입한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의 저성장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꽤 높은 성장률이다. 이른바 CLMV라고 부르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2017년 성장률은 6.8~6.9%였다. 최근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는 아세안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

1967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방콕 선언'을 통해 아세안을 창설했고, 1999년 캄보디아의 가입을 마지막으로 아세안 10개국 체제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동남아 전역에 걸친 다양한 민족, 정치 체제, 종교 등을 아우르기 위한 아세안의 구체적인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1997년 동남아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 공동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 간 긴밀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대외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 중국, 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로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면서 아세안 내부 산업 기반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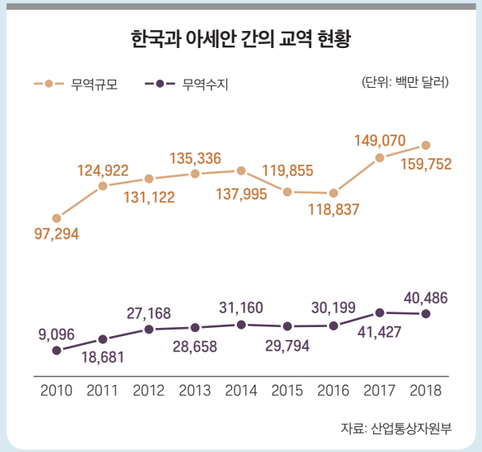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2007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AEC Blueprint) 2015'를 채택했다. 이 청사진에는 단일 시장 및 생산 기반 구축, 경쟁력 높은 경제 지대, 균형 경제 발전, 세계 경제와의 통합 등이 담겨 있다. 2010년에는 아세안상품무역협정(ATIGA)이 발효되어 역내 경제 통합을 본격 개시했다. 그리고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공식 출범했다.

아세안은 경제통합을 통해 GDP 기준 세계 6위(당시 기준)의 거대 경제 블록으로 부상했으며,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6개국과 양자 FTA를 체결했다. 이 6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합치면 세계 인구의 50% 가까이 되는데, 이들 16개 국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아세안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아시아 경제 및 자유무역의 중심으로서 아세안의 위상이 점차 확고해지고 있다.

한·아세안 교역 및 투자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2대 교역 대상이자 2대 투자처다. 2018년 한국과 아세안 간 교역액은 1,59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14%를 차지했다. 한·아세안 FTA 발효 직전인 2006년 교역액 618억 달러와 비교하면 약 2.5배로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액이 약 1.8배, 중국과의 교역액은 약 2.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보면, 아세안과의 교역액이 얼마나 빠르게 늘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아세안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석유제품, 전자제품 등이고, 수입하는 품목은 반도체, 천연가스, 의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8년 베트남과의 교역이 683억 달러로 한·아세안 전체 교역액의 약 43%를 차지한다. 뒤를 잇는 인도네시아(200억 달러), 싱가포르(198억 달러), 말레이시아(192억 달러), 필리핀(156억 달러), 태국(141억 달러)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얀마(11억 달러), 캄보디아(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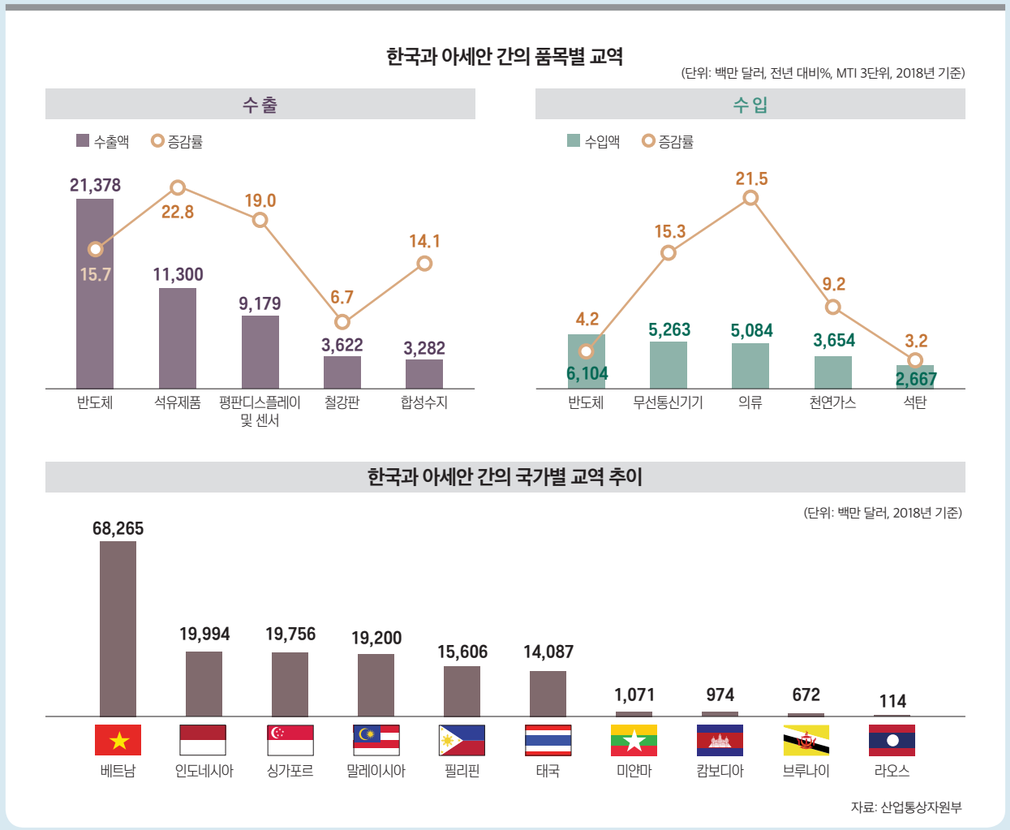
브루나이(7억 달러), 라오스(1억 달러)와의 교역은 더욱 크게 격차가 벌어진다. 이들 네 국가와의 교역액을 모두 합쳐도 한·아세안 전체 교역액의 2%에도 이르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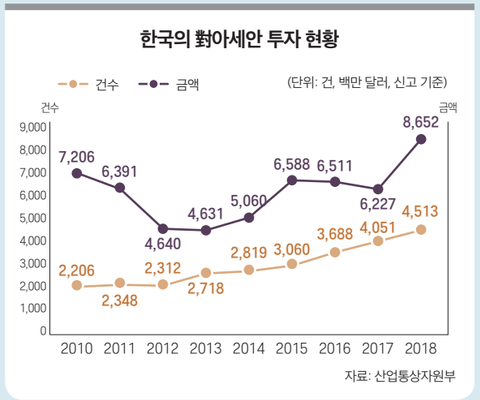
2018년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투자한 금액은 86억5,000만 달러(신고 기준)이며, 이 역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투자한 금액의 14.6%에 달한다. 2001년 아세안에 대한 투자액이 5억3,000만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36억6,000만 달러로 가장 앞서고, 싱가포르(31억5,000만 달러), 인도네시아(7억5,000만 달러), 캄보디아(4억3,000만 달러)에 대한 투자가 뒤를 잇고 있다.

아세안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5대 교역 대상이자 5대 투자국이다. 아세안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아세안과 교역이 많았던 국가는 중국(17.2%), EU(10.2%), 미국(9.3%), 일본(8.2%), 한국(5.7%) 순이고, 아세안에 많이 투자한 국가는 EU(14.2%), 일본(13.7%), 중국(6.6%), 미국(5.2%), 한국(4.2%) 순이다. 이 수치를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아세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아세안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의 추진

2017년 11월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표명하면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의 3P 공동체를 지향하고,





△교통, 에너지, 수자원, 스마트 정보통신 등 4대 우선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아세안 연계성(Connectivity) 증진 사업 참여를 확대하며, △한·아세안 협력 기금을 기존 연간 700만 달러에서 1,400만 달러로 늘리는 등 주요 협력 기금을 증액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 2018년 11월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 구축이라는 3대 목표 아래 사람, 상생번영, 평화 공동체 분야에 대한 16개 추진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사람 공동체 분야로는 상호 방문객 확대,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상생번영 공동체 분야에서는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등을 추진한다. 평화 공동체 분야에서는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상생번영 공동체 분야의 추진 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RCEP 조기 타결,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신남방 지역 내 인프라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신남방 지역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및 신산업 협력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가별로 다양한 협력 수요에 따라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도약을 위한 과제

지난 30년 동안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글로벌 강대국이 아세안에서 벌이는 각축에는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아세안에서 우리 나름의 입지를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① 균형 무역을 지향

1989년 82억 달러에 불과하던 아세안과의 연간 교역액이 불과 30년 만에 20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2018년 한·아세안 교역액 1,598억 달러 중 43%는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나온 것이다.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와의 교역액을 모두 합쳐도 전체의 2%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대조된다. 우리나라의 아세안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총 928억 달러 규모인데, 이 중 베트남 한 곳에만 313억 달러의 투자가 집중된 결과다.

아세안이 물론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교역과 투자가 특정 국가에 편중된 것이 여타 아세안 국가로서는 분명 달갑지 않은 일이다. 아세안 전체를 폭넓고 균형 있게 바라보고 여러 국가가 각자 보유한 잠재력을 십분 활용할 기회를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넓은 내수시장을 바라본다면 인도네시아를, 높은 경제성장률을 염두에 둔다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과의 무역수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흑자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6년 23억 달러에 불과하던 흑자 규모가 2018년 405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으로 아세안에 수출한 액수는 1,001억 달러인 반면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596억 달러다.

아세안에서 제조하는 상품은 가격경쟁력이 높아 대부분 국가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적자를 보는 국가는 중국, 한국, 러시아 정도에 불과하다. 2018년 아세안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858억 달러, 대러시아 무역적자는 80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러시아 적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대부분이 에너지 수입에 기인한다.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PEOPLE	PROSPERITY	PEACE
사람 공동체	상생번영 공동체	평화 공동체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 구축**
(2020년까지 상호 방문객 연간 1,500만 명 달성)	(아세안 : 2020년 교역액 2,000억 달러)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순방 및 정상 방한 등 전략적 협력)
① 상호 방문객 확대 ②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③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 ④ 공공행정 역량 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⑤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 ⑥ 삶의 질 개선 지원	⑦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⑧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⑨ 중소기업 등 시장 진출 지원 ⑩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역량 제고 ⑪ 국가별 맞춤형 협력 모델 개발	⑫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⑬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⑭ 국방·방산 협력 확대 ⑮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 대응 ⑯ 역내 긴급사태 대응 역량 강화

반면 아세안의 대한국 적자는 규모가 크고 품목도 아세안이 육성해나가기를 희망하는 소재·부품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아세안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아세안과 일본의 무역수지다. 1990년대에 아세안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적자를 봤다. 일례로, 1995년 아세안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35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상당한 액수다. 같은 해 대중국 적자, 대한국 적자는 각각 9억 달러, 28억 달러에 불과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아세안의 대일본 공산품 및 에너지 수출이 늘어나면서 무역적자는 크게 줄어들었고 급기야 최근 몇 년간은 적자와 흑자를 오가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과 사실상의 균형 무역을 실현하고 있다.

교역을 할 때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돼야만 거래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리가 아세안을 상대로 얻고 있는 막대한 무역흑자가 당장에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흑자가 누적된다면 아세안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다지 매력적인 교역 상대국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아세안을 상대로 역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은 2018년부터 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해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아세안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세안은 국제수입박람회를 중국이 균형 무역을 추구하려 한다는 제스처로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16일 실질 타결된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필리핀, 말레이시아와의 FTA 최종 타결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혁신 성장 쇼케이스, 스타트업 서밋과 같은 경제 행사도 다수 개최한다. 그리고 아세안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금년 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앞으로 아세안과의 교역에서 확대와 균형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국익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② 아세안 국가별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이해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출범했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이질적이고 상이한 수준의 경제발전 단계에 있으며 각국이 추구하는 경제성장 전략 또한 다르다. 아세안에는 싱가포르·브루나이처럼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국가가 있는가 하면, 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처럼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려는 국가, 베트남처럼 중진국 대열에 올라서고자 하는 국가, 그리고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처럼 아직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 저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국가가 있다.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에는 사실 새롭다고 할 만한 게 없다. 다만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심화는 바로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아세안 회원국은 모두 중·장기 경제개발계획과 전략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시절인 2011년부터 MP3EI로 불리는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왔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5년 국가개발 중점 9대 분야인 나와 치타(Nawa Cita) 계획을 제시했다. 최근 재임에 성공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5,000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발전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다.

한편 아세안의 후발국 가운데 하나인 라오스는 제8차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SEDP)을 이행 중이다. 2020년까지 최빈국(LDC) 졸업 및 1인당 국민소득 1,870달러, 농업성장률 연 3.2% 달성 등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아세안 10개국의 다양한 성장 전략과 정책은 한국의 입지를 보다 강화시켜준다 하겠다. 한국은 이 모든 경제성장 단계를 경험해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각 시대를 풍미했던 산업의 탄생과 사장, 그리고 진화를 모두 경험한 나라다. 그만큼 성장 단계별 산업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한·아세안 경제협력 과정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세안을 우리 상품의 판로나 저렴한 인력시장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남방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그리고 있다. 아세안 국가가 성장하지 못하면 이러한 공동체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세안 국가가 고민 끝에 수립한 국가발전 전략을 존중해야 하며, 아세안 10개국과의 개발, 경제협력과 관련한 대화를 보다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

③ 아세안의 정책 방향과 정합성 확보

아세안은 국가별 발전 전략 외에도 역내 경제 통합과 발전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정책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와 그 하위 정책인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가 대표적이다. MPAC 2025는 아세안 국가 간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아세안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MPAC 2025는 5대 전략 분야의 15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5대 전략 분야는 지속 가능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제도 혁신, 인적 이동으로 구성된다.

임성남 주아세안 대사 사진제공: 주아세안 대표부

MPAC 2025의 핵심 과제는 아세안 국가 간 물리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인데, 지난 6월 아세안은 40개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고, 각국이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세안은 매년 국가명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데, 의장국의 중점 추진 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2018년도 의장국이던 싱가포르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를 플래그십 사업으로 추진했고, 올해 의장국인 태국은 4차 산업혁명을 테마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아세안의 정책에 아세안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신남방정책의 시행으로 아세안과 협력할 수 있는 정부 재원도 대폭 늘었고, 국내 여러 기업도 아세안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협력 사업이 아세안의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확보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통상 관계도 본질적으로는 인간관계와 다름없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통상 관계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아세안의 수요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의 공통분모를 발굴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무역 갈등에 따른 외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 협력체는 지속적·안정적인 성장의 필수 요인이 됐다.
한국에게 아세안은 이러한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로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 이전과 수출 시장, 투자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

날개 단 한·아세안 경제협력 '함께하는 미래' 새 판 짠다

스마트 기기로 QR코드를 인식하면 대담 일부를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넘어 정치·외교·사회·문화 동반자로 성장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①을 선언한 후, 처음으로 아세안의 모든 국가를 초청하는 행사인 이번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와 아세안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제3차 특별정상회의 의미

최윤정 센터장
아세안이 가장 관심 갖는 지역 현안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접점 모색해야

이충열 교수
정치·문화 분야 협력 강화해
주변 4강만큼 중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권율 선임연구위원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 펼치는 아세안,
우리나라 신남방정책과 맞닿아 있어

최윤정 센터장 ——— 1967년 설립된 아세안의 초창기 목적은 역내외 정치·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자본과 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 아세안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등 역외 국가와 협력을 시작했다. 한국은 부분적 대화상대국 지위를 획득한 1989년부터 30년간 아세안의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대화 관계 수립 20주년과 25주년 때 제1·2차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의 외교를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아세안 대화 상대국 10개국 중 아세안과 세 번이나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16년이나 먼저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일본도 두 번의 특별정상회의를 진행했으며 미국, 중국, 인도, 호주 등은 아세안에서 한 번 개최한 것에 그쳤다. 특히 이번 회의는 아세안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인도·태평양 전략②과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한·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관점을 발표하며 지역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파트너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충열 교수 ———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989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경제 분야에서 특히 성과를 냈다.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 규모는 1990년 8억2,000만 달러에서 2018년에는 1,597억5,200만 달러로 무려 195배 증가했다. 우리나라 무역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89년 8%에서 2018년 14%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비해 정치·문화 분야 교류 및 협력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 제1·2차 회의와 달라진 점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과 관련 있는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정치·문화 분야에 대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불균형을 해소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세안을 주변 4강만큼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도 될 것이다.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제도적으로 추진한 이후 개최한 첫 정상회의라는 것, GVC③ 하에서 양국 정부가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상호 이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신남방정책을 일회성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권율 선임연구위원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모두에게 외교 지평을 넓히고,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 환경과 대응 방식이 비슷하다. 중국의 아세안 일대일로 이니셔티브④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고 있지만, 국익에 따라 유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에 중점을 둔 아세안의 외교 전략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파트너로 적절한 이유이기도 하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나 안보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아세안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급성장하고 있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세안에게도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아세안의 총인구는 6억5,429만 명, GDP는 2조9,863억 달러, 역내 1인당 GDP는 4,593달러를 기록했다. 아세안 국가가 급성장하게 된 배경을 대내외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해본다.

글로벌 통상환경 속 아세안 시장

권율 선임연구위원
미·중 무역분쟁이 만든 새로운 질서
베트남, '세계의 공장' 중국 대안으로 부상

이충열 교수
동북아 제외하면 가장 높고 안정적 성장세 이룬
아세안, 전 세계 투자처로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최윤정 센터장
메콩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인구 3억 명
주변 5개국과 소다자 협의체 구성해야

권율 선임연구위원 ——— 아세안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외자 주도형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해왔다.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5]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포스트 생산 거점으로서 아세안 투자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은 7.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아세안 회원국은 연평균 5~6% 수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아세안 역내 소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던 중국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국제조 2025[6]를 통해 차세대 IT 및 첨단 설비 개발과 육성을 강조하며 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저임금·저비용 구조의 노동집약적산업의 국가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섰고, 저임금에 양

질의 노동력이 풍부한 베트남에 주목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을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최근에는 중국 기업마저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활발하게 진출 중이다.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 규모는 2016년 745억 달러에서 2018년 1,001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한국 기업의 아세안 투자 진출은 이미 중국을 넘어섰다. 2018년 기준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 법인은 1만5,000개에 달하며, 이 중 7,500개가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충열 교수 ———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경제 개방, 지역 협력 정책 및 경제성장을 추진한 아세안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인적 자원, 외국인투자의 결합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특히나 아세안은 유럽과 일본, 중국 등이 경쟁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과 일본이 자본과 기술 및 중간재를 공급하고, 아세안이 인력과 천연자원을 공급해 아세안에서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는 구조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 중심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도 아세안은 중요한 지역이다. 아세안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중국이 인도양이나 대서양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35년간 전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을 보면, 동북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아세안이 가장 높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 아세안이 동북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저축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성장 가능성은 국민의 행동 양식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법인데, 아세안은 젊은 인력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저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시장에는 전 세계 투자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세안이 우리나라와 협력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아세안 입장에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임상실험' 결과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시장을 개방했지만 저개발 국가라는 취약점을 가진 아세안에게는 각종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한 한국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윤정 센터장 ——— 세계경제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 3.5%, FDI 20%, 인구 8.5%, 관광객 9.5%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아세안의 GDP는 세계 4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 때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아세안 중에서도 성장 유망 지역으로 관심받고 있다. 한반도보다 4배나 긴 메콩강을 생활 터전으로 살아가는 인구는 3억 명에 달한다. 메콩강은 아마존 다음으로 오염되지 않은 물과 다양한 생물을 보유한 곳으로, 인도차이나반도의 생명선이라고도 불린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한류의 인기가 워낙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협력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세안이라는 커다란 공동체와의 협력뿐 아니라 메콩강 5개국과의 소다자 협의체와 정상 간 협력은 외교적으로 의미가 크다.

"아세안 환심 사라" 글로벌 주도권 전쟁

아세안 주변 국가들의 아세안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중국과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통한 패권 전쟁과 대규모 원조를 앞세우고 있는 일본까지, 아세안을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진출 현황을 알아본다.

주요국의 아세안 투자 형태

권율 선임연구위원
중국·일본, 아세안 투자 급속도로 확대
메콩강 유역 지원과 베트남 등 대규모 원조

최윤정 센터장
라오스·캄보디아는 이미 중국 자본이 잠식
미국도 인프라 구축 사업 실시

이충열 교수
일본이 태국 현지 고속도로 건설로 자동차 구매 수요
창출했듯 한국도 현지 인프라 구축 지원해야

권율 선임연구위원 ——— 최근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의 투자 1위국은 홍콩이며,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도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중이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따라 아세안 연계성을 위해 철도, 전력, 농촌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메콩강과 같은 유역에 속하기 때문에 상류 국가로서 메콩강 지역 개발에 대한 수자원 분쟁을 겪고 있다. 중국 상류 지역에 전력 공급을 위한 댐을 설치하면 하류 지역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은 이미 란창강-메콩강 정상회의를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메콩강 유역의 저개발 국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일본 역시 아세안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베트남뿐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등 주변 아세안 국가에 대규모 원조를 펼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기준 베트남에서 약 16억 달러 규모의 ODA(공적개발원조)[7] 사업을 진행, 메콩강 유역 국가를 대상으로 자금 협력과 다양한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윤정 센터장 ——— 아세안은 G2(미국·중국)가 사활을 걸고 노리는 격전지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목적지를 아세안으로 잡고, 아세안을 기점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도 아세안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지역으로 두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아세안을 사로잡기 위해 현지에서 가장 절실한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의 자본으로 철도, 항만, 댐, 경제 특구 등을 설립하고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는 이미 중국 자본에 잠식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2018년 인도·태평양 내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디지털 연결성 강화,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목표로 제시했고, 2019년 10월 1일에는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를 발족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아세안은 2018년 중동을 제치고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 1위 지역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충열 교수 ——— 우리나라도 앞서 언급한 나라들과 같이 현지 인프라 설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국내에 있는 모기업도 발전하는 가치사슬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쉬운 예를 들자면, 태국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 12위 규모로, 연간 200만 대를 생산하고 있다. 태국 브랜드 자동차는 한 대도 없고 모두 일본 브랜드다. 태국 현지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한 일본 기업은 만에 하나 수출이 부진해질 경우를 대비해 현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1990년대 태국 현지에 고속도로를 개통했고, 현지 태국인은 자동차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도로 건설로 막대한 간접효과를 얻은 것이다. 당장 눈앞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자각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의 각 부처와 기업 및 노동자가 모두 협력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아세안의 항만 시설 개설, 인적관리, 관세 제도 개편 등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세안만을 위한 것이 아닌,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10년 후의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그려보라

한·아세안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또 기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려면 우리 정부와 기업, 학계 등은 어떤 자세와 협력이 필요할까.

성공적인 한·아세안 경제협력을 위한 방안

이충열 교수
국가별 다양성을 고려해
미래 맞춤형 투자 전략 수립해야

권율 선임연구위원
눈앞의 비용 절감보다 이미지 제고 중요
사회간접자본·인적자원 육성 지원해야

최윤정 센터장
아세안의 가능성은 무궁무진
문화와 통상 함께 갈 수 있는 아이디어 필요

이충열 교수 ——— 아세안의 다양성은 곧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시작해 50~60년에 걸쳐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한 우리나라라면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기술집약적 산업인 휴대폰 생산은 베트남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류 생산은 캄보디아에서 할 수 있다.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만 가능한 일본이나 유럽으로선 어려운 영역이다. 다양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은 아세안의 다양성을 적절히 활용하며 협력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10~15년 후의 아세안과 협력할 수 있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1인당 소득 1만 달러 이상으로 성장한 말레이시아와 같이 아세안 국가가 급성장해 저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아지면, 한국 기업은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한다. 쉽게 말해 베트남이 급성장하면 노동집약적 산업은 베트남이 아닌 캄보디아 또는 미얀마 등지로 옮겨야 할 것이다. 하청 중심의 수직적 산업구조에 대한 해소 방안과 함께 넥스트 베트남, 넥스트 말레이시아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

권율 선임연구위원 ——— 국제 분업체계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호혜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단기적 실익이 아닌, 중·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ODA를 통해 도로, 상하수도 처리 시설, 폐기물 시설, 에너지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 교육훈련 등과 같은 아세안 인적자본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은 비용 절감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CSR(사회공헌활동), CSV(공유가치창출) 등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한다. 현지 진출 기업이 아세안 지역 가치 창출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역내 개발 격차로 경제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아세안의 구조적 취약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면 아세안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RCEP⑧이 실질적 타결에 이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내년으로 보류된다고 해도 심층적인 논의와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RCEP이 타결되면 아시아 경제 통합과 역내 무역자유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최윤정 센터장 ——— 양국이 상생 번영하는 상호적·호혜적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협력 사업도 아세안 현지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하고 실행 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설립된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한국 기업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중소기업으로 넓히는 것이다. 현지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홍보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의 수출도 지원함으로써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아세안에게 화답하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RCEP의 경우, 시장에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도 상기해야 한다. 아세안은 스펙트럼이 넓은 지역으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보다 유니콘 기업이 두 배 많은 인도네시아, 모바일 금융 분야에서 한국을 뛰어넘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이 있다. 또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준비 중인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에 문화와 통상을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이 추가되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상

이달의 마주보기 단어 사전

① **신남방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공식 발표한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주변 4강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

② **인도·태평양전략** 인도양에서 태평양까지 걸쳐 있는 지역에서 법의 지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역내 항행의 자유 등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견제하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③ **GVC**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약자로, 제품의 설계,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기업 활동을 다수 국가와 지역에 배치하는 글로벌 분업 구조

④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중국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말한다. 35년간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재구축해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이니셔티브

⑤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

⑥ **중국제조 2025** 중국이 2015년 5월 8일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발표한 산업 고도화 전략

⑦ **ODA**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 개발원조

⑧ **RCEP**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ICT 기술로 아시아 장악할 것"

윤원석 한글과컴퓨터그룹 해외사업 총괄 사장

윤원석 한컴그룹 해외총괄 사장

- **2013. 07.** KOTRA 기획조정실장
- **2014. 10.**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 (상임이사)
- **2015. 05.** KOTRA 정상외교 경제활용지원센터장
- **2017. 07.**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겸 무역기반본부장
- **2019. 01.**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IGIC) 회장
- **2019. 10.~** 한컴그룹 해외사업총괄 사장(한컴MDS 소속)

한국 소프트웨어의 원조인 한글과컴퓨터는 전 세계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항해 우리나라 국민 워드 프로세서인 '한컴오피스'로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 문서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한컴오피스 2020'을 내놓았다. 한글과컴퓨터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 외에도 14개 기업이 모여 그룹으로서의 기반을 갖추었다.

한글과컴퓨터그룹(이하 한컴그룹)에서는 최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가정용 개인 로봇 '토키(Toki)'를 공식 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한 IoT 레이더 센서와 CCTV를 융합한 '말랑말랑 파킹프렌즈'를 활용해 공유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화재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전통시장 내 화재의 감지와 알람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소방관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도 통신하고, 전방표시 장치를 통해 공기 잔량과 호흡장치의 개폐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형 공기호흡기도 보급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컴그룹은 해외사업 총괄조직을 새롭게 통합했다. 그리고 이 조직을 이끌어갈 인물로, 33년간 KOTRA에서 근무하며 정상외교와 글로벌 CSR(사회공헌활동), ODA(공적개발원조)를 모두 경험한 윤원석 前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을 한컴그룹의 해외사업 총괄 사장으로 선임했다. 무역 투자 진흥을 넘어 정상외교를 통한 신남방·신북방정책 실현에 기여한 그가 한컴그룹에서 새롭게 꾸려나갈 청사진이 기대된다.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 독점한 MS,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갖춘 한컴오피스의 추격 라오스, 미얀마 등 신시장 개척 중

Q **한컴그룹의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띕니다. 오피스 소프트웨어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A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및 AI, VR, 로봇, 블록체인 등을 기반으로 한컴그룹은 정부, 기업, 산업, 교육, 의료, 관광 분야는 물론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최근 기존의 해외조직을 모두 통합해 사업화하는 등 해외사업 총괄조직을 새롭게 구성한 것 또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컴그룹의 우선적인 목표는 한글의 디지털화에 성공한 '한컴오피스 2020'의 글로벌 시장을 넓히는 것입니다. 현재 MS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컴오피스의 점유율을 3~5%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거센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관심이 높은 신흥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높고 산업화 협력이 가능한 신남방 지역을 목표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Q **한컴그룹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최근 진출 현황이 궁금합니다.**

A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반면, 최근 중국은 여전히 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중국처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장은 어디일까요? 미국, 유럽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졌고,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결국 아시아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세안은 매년 5%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GDP는 2조9,000억 달러로 현재 세계 5위, 향후 세계 4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화와 정보화,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와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고요.

먼저, 한컴그룹은 지난 8월 8일 라오스 우정통신부와 국정 오피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라오스 IT 환경에 최적화된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라오스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컴그룹이 라오스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눈여겨본 시장은 '미얀마'입니다. CMLV(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체제 변환국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늦게 시장을 개방한 국가가 미얀마인데요. 미얀마는 아직 산업화 및 정보화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선점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한컴그룹은 동남아시아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면서 미얀마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동남아 순방 경제사절단 참여를 통해 미개척 시장이었던 미얀마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 결과 10월 16일 미얀마 컴퓨터산업연합회(Myanmar Computer Industry Association)와 업무협약 체결을 한 것입니다. 미얀마 현지 오피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한컴그룹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미얀마 디지털화 사업 전개 등에 합의했습니다.

국가별 언어로 구축된 오피스 소프트웨어와 전자정부 솔루션까지 제공 세계시장 점유율 5% 목표

Q 한컴그룹의 기술력과 제품이 갖는 강점은 무엇인가요.

A 아직 세계에는 정보화가 필요한 국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영어 기반의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이에 따라 한컴그룹은 각 나라에 자국의 언어로 된 오피스 소프트웨어, 나아가 전자정부의 솔루션까지 가능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글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를 꾸리고 있듯이 말이죠. 특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MS가 진출하지 않은 시장인 만큼 선점이 가능합니다. 한컴그룹은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기술, 블록체인 등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마존, 아이플라이텍 등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 역량도 뛰어납니다. 여기에 한컴 브랜드 자체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한글의 디지털화로 우리나라 ICT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종학당 등을 통해 글로벌 한글 및 한국어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요.

한컴그룹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금융 등 융·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해외 진출 현황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일본,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란, UAE,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리비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19개국

연혁

1990	한글과컴퓨터 창립
2005	한컴위드 인수
2010	한글과컴퓨터 인수
2014	한컴MDS 인수
2015	한컴GMD 인수
2016	한컴텔라딘 인수
2017	한컴라이프케어 인수 한컴로보틱스 인수
2018	한컴인베스트먼트 설립 한컴엔플럭스 인수 한컴모빌리티 인수

Q 한컴그룹과 같이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많을 텐데요.

A 소프트웨어는 현지화 및 개인화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현지의 정보 수집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변화를 읽을 수 없고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R&D와 인력 육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따라잡지 않는다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대기업 공급망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은 한국 기업의 숙명으로, 중소기업도 해외 진출에 도전해야 합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에 투자해 현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며 상생·발전하는 한국형 진출 모델이 필요합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이 가야할 길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2020년이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한컴그룹의 내년도 해외 사업 계획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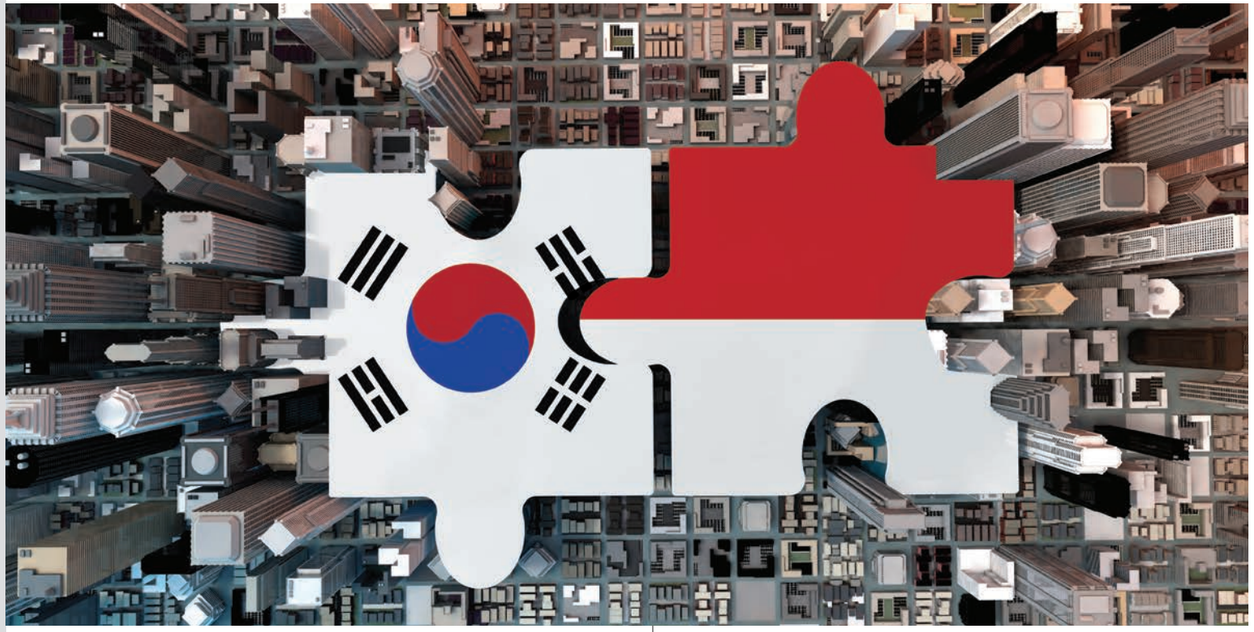
A 먼저 오피스 소프트웨어만 판매하는 한컴그룹이 아닌 소방 및 생활안전, 모빌리티, 블록체인 등의 분야까지 접목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가정용 개인 로봇 '토키(Toki)', IoT 레이더 센서와 CCTV를 융합한 '말랑말랑 파킹 프렌즈'처럼 말입니다. 아울러 한컴이라는 브랜드와 한국이라는 국가를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방침입니다. 국내에만 머무르는 기업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MS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빼앗아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한컴그룹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알릴 것입니다. 올해는 기술 교류와 인적 교류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그룹을 탄탄하게 다지고, 내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인구대국과 상생 틀 마련 신남방정책 큰 물꼬 텄다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의미

CEPA를 통해 마련된 협력 채널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연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으로 기업의 혁신 역량을 키우고, 한국 기업이 보유한 GVC에 합류하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양국이 협력관계를 강화해 서로 윈윈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이번 CEPA에 큰 의의가 있다.

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협상 재개 8개월 만에 실질적 타결

2019년 10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탕그랑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선언했다. 이는 2019년 2월 양국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지 8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은 사실 2012년에 시작되었다. 2012년 7월 제1차 협상을 개시해 2014년까지 약 3년간 일곱 번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고, 5년 동안 후속 협상 없이 중단됐다.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협상 재개 논의가 이어졌다. 2016년과 2018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방한했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2006년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2017년 11월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현대자동차, 포스코, 롯데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해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 투자를 추진 중이다. 포스코는 인도네시아에 철강 공장을 설립해 2014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30억 달러의 후속 투자와 대규모 인력 투입 등에 힘입어 2017년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2018년에는 순이익 흑자 전환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주택건축, 교육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진출 사례는 인도네시아 정부 주요 인사들로부터 해외직접투자의 성공적 사례로 언급된다. 롯데케미칼은 2010년 1조 5,000억 원을 들여 말레이시아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타이탄케미칼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타이탄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자바섬 반텐주의 메락 공장도 함께 인수해 생산 능력 45만 톤인 공장 규모를 60만 톤까지 확장했다. 롯데케미칼은 총투자비 40억~50억 달러, 신규고용 1,500명의 대규모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갖춘 플랜트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세계 인구 4위 인도네시아, 성장 잠재력 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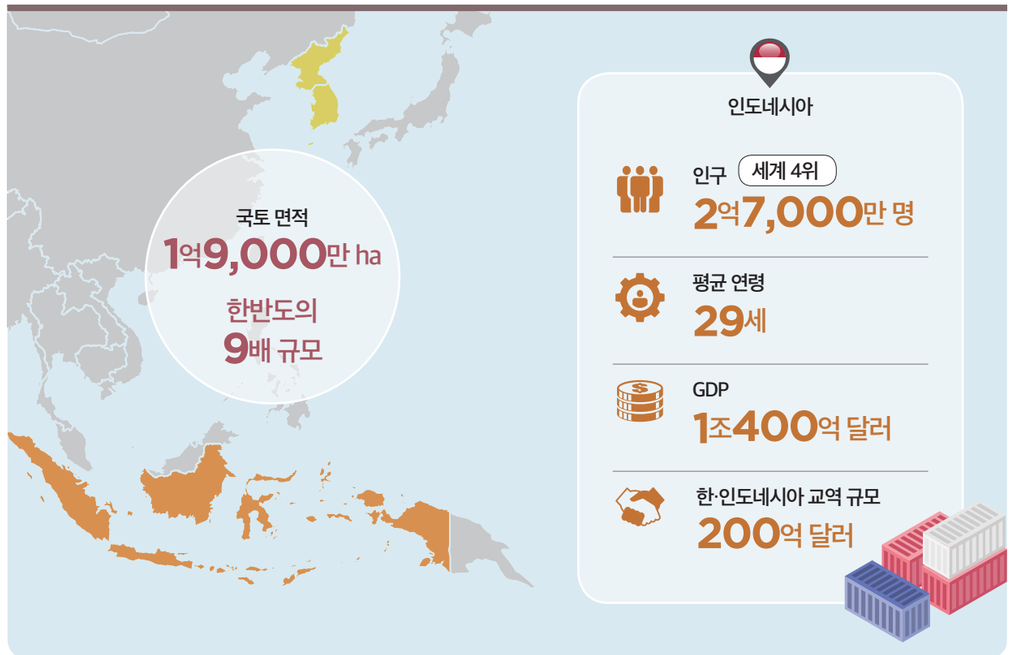
양국 간 교역액 또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양국 간 교역액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149억 달러로 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8년 한·인도네시아 교역액은 200억 달러를 달성했고, 2022년까지 300억 달러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 대상국이 되었고, 아세안 국가 중에는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다.

양국 간 인적 교류 또한 활발해졌다. 2018년에는 35만여 명의 한국인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25만여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2013년 한국 방문 인원이 약 12만 명이던 데 비해 5년 동안 약 2배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국 간 고용허가제를 통해 2004년부터 7만6,000여 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양국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2019년 2월 양국 통상장관은 협상 중단 5년 만에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2019년 4월 제8차 협상 이후 10월까지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양국은 집중적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그 결과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은 아세안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무역·투자 확대의 기틀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의 인구 규모와 젊은 인구구조를 갖춘 유망 시장이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7,000만 명으로, 필리핀·베트남·태국의 인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내용

① 상품 시장 개방 확대	② 서비스·투자 확대
우리나라 수입 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 관세 철폐	-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 대폭 확대 (온라인 게임, 도·소매 유통 등 신규 개방)
인도네시아 수입 품목 중 **93.0**%, 수입액 중 **97.0**% 관세 철폐	- 현지 투자자 보호수준 제고 (최혜국 대우,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구를 합친 것과 비슷하며 아세안 10개 국가 중 최대 규모다. 또한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를 형성해 향후 성장 잠재력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경제지표 역시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5년간 평균 5%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3년간 평균 5.2%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인도네시아가 장기적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이뤄 2030년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 규모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품 93% 관세 철폐, 높은 수준 시장 개방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대아세안 양자 협상 중에서 첫 번째로 결실을 맺는 대상이 되었다. 이번 협정에서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 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시장 개방 수준을 약 13%p 높였다. 2007년 한·아세안 FTA가 발효했음에도 인도네시아는 그간 상호주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입 품목 중 80.1%에만 무관세를 적용해 우리 기업이 한·아세안 FTA 혜택을 활용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이러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평가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 제품(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 자동차 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시 즉시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섬유(5%), 기계 부품(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우리 중소기업 품목에 대해서도 상당수 즉시 관세 철폐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한편,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을 통해 시장 개방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한 개방 품목도 이미 체결한 FTA 수준을 감안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다만 벙커C유(3~5%, 즉시 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 철폐), 맥주(15%, 5년) 등 우리나라 입장에서 크게 민감하지 않은 품목은 양국 간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규범 측면에서도 양국은 수량 제한 금지 의무, 예측 가능한 수입 허가 절차 운영, 수출입 수수료 공개 등 높은 수준의 규범에 합의해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겪는 비관세 장벽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전에는 섬유, 의류 등의 품목은 여러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는 최근 추세에 맞춰 가공 과정에서 품목 자체가 변하거나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창출되면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했다. 역외산 부품 조달이 용이한 기준을 반영(기계, 전자전기)한 점도 한·아세안 FTA 대비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부분이다. 그뿐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인증수출자(2년 내 도입),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원칙적으로 10년 내 도입)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우리 기업은 CEPA 사용이 갈수록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특혜관세 사후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률이 기존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간 논의 넘어 민간 차원 협력 확대 공감대

양국은 이번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해 자동차 등 산업 개발, 에너지, 문화 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틀을 마련했다. 특히 협력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간 논의를 넘어 민간 차원까지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양국은 공감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마련된 협력 채널을 통해 주요 산업 육성·R&D·인력 양성·에너지·인프라 구축 등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인도네시아와 공유하고, 한국의 기술·인력 및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 셈이다.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거나 진출할 때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허가 지원, 협력 업체 발굴, 현지 인력 교육 등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한·인도네시아 CEPA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기업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 역량을 키우고,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듯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국가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이번 한·인도네시아 CEPA의 의의가 있다.

한·인도네시아 CEPA를 실질 타결하면서 신남방정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올해 11월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첫 번째 FTA를 타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도네시아의 시장 개방 수준을 13%p(80.1%→93%, 품목 수 기준) 높임으로써, 우리 기업이 경쟁국과 대등하거나 우위의 조건에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우리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보다 많은 사업 기회를,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양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 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상생 협력의 틀이 한·인도네시아 CEPA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한·인도네시아 CEPA의 성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CEPA를 최종적으로 타결한 후 법률 검토, 경제적 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식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 국회 비준 동의 등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치면 비로소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하게 된다.

공동체로 이룩한 눈부신 성장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경제, 사회, 기술, 행정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힘을 모으며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룬 아세안이 단단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자료. ASEAN 공식 홈페이지(asean.org), 한-아세안센터(aseankorea.org), 아세안문화원(ach.or.kr)

아세안이란?

동남아시아 10개국이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라는 이념 아래 공동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국제기구

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

아세안 10개국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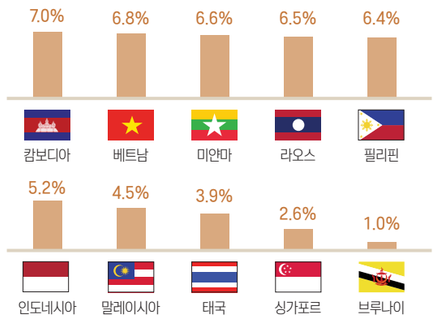
- 1989 부분 대화 관계 수립 ▶ 1991 완전 대화상대국으로 격상
- 1993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
- 2007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발효
- 2019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 특별정상회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방문객	투자	무역 규모
한국을 방문한 아세안 국민 246만2,080명	아세안의 한국에 대한 투자 15억4,000만 달러	對아세안 수출 1,001억1,000만 달러
아세안을 방문한 한국인 878만1,113명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 85억9,000만 달러	對아세안 수입 596억3,000만 달러

아세안의 강점

2019 경제성장률 전망



출처: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과 개별 협정을 맺은 국가는?

* CEPA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11월 개최되는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과의 관계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30년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

+

메콩강 유역 5개국*과 관계 발전의 계기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모두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가는 공기기술 전문 기업

(주)올스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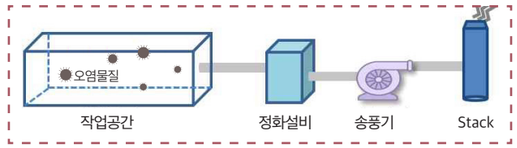
그동안 세계 공기기술 분야는 미국과 유럽 등이 주도해왔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해외에서 기술과 시스템을 수입해야 했다.
그런데 2015년, 국내 최초 공기기술 전문 기업이 혜성처럼 나타났다.
설립 3년 만에 중국 시장에 진출해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을 이겨낸 (주)올스웰이 그 주인공이다.

국내 최초 공기기술 전문 기업의 탄생

올스웰은 2015년 5월에 설립된 국내 최초 공기기술 전문 기업이다. 공기기술이란 공간 내 공기 오염의 발생원부터 배출 공기의 질까지 관리하는 공기 유동 제어 기술이다. 지금까지 공기기술 분야는 미국, 유럽 등 기술 선진국이 주도해왔으며, 우리나라는 매우 생소한 분야였다.

"올스웰 설립 전 근무했던 철강 회사에서 내부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시설 검토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이때 공기를 다루는 시장에 관심이 생겼죠.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퇴사한 후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공기와 관련된 교육을 계속 받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후 강연수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와 올스웰을 설립하고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학적 지식을 보완·적용해 독자적인 공기기술 모델을 체계화했다.



올스웰의 '필터 없는 공기정화 시스템(W-FLES)'은 공간 전체를 고려하는 'Preliminary 설계 기술'이다. 작업공간 전체의 공기질 및 배출 농도 관리와 오염물질의 특성과 발생량을 고려한 시스템 디자인이 특징이다.

중국이 인정한 올스웰의 독자적 시스템

"올스웰만의 차별점은 표준화된 단일 정화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공간 특성과 공기흐름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설계를 진행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공간 및 공기 질에 대한 맞춤화 진단 및 설계 없이 표준화된 설비만 적용하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반면, 올스웰은 처음부터 공간 내 오염 물질의 특성을 고려해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이러한 독자적인 시스템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스웰은 설립 3년 만에 세계 2위이자 중국 1위의 철강 기업 '바오산강철'과 약 85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수주했다. "많은 분들이 3년이라는 짧은 업력에도 어떻게 세계 2위 철강 기업 '바오산강철'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시 지멘스, 미쓰비시, 신일철주금 엔지니어링 등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해 올스웰이 최종 선정되었으니까요. 기존 철강 업계에서는 필터가 있는 공기정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올스웰은 유일하게 '무필터' 방식의 공기정화 솔루션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올스웰은 바오산강철 프로젝트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 제거 및 시스템 성능에 대한 일곱 가지 보증치를 완벽하게 만족시켰다. 이후 올스웰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안산강철, 수도강철, 사강그룹 등 중국 10위권 내 철강 기업들과 기술 교류 및 협약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으로 '대공간 환기정화시스템'을 개발 완료해 학교 실내체육관에 시범 설치했다. 성능 인증이 완료돼 공공시장에 대한 사업도 확장 중이다. 또한 지하철의 공기정화 솔루션도 사업화할 예정이다.

수출의 엔진이 되어준 정부 지원 사업

올스웰은 올해 10월 17일 '비전 2025 선포식'을 통해 중국을 넘어 유럽, 동남아시아, 대만 등의 시장 진출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4분기에는 유럽 철강 기업들과 미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스웰이 설립된 지 이제 5년, 짧은 시간 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창업 초기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차이나하이웨이 및 아시아하이웨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장 조사, 홍보 등 해외시장 진출 시 필요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해외 진출 방향 확립과 회사 홍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다. 처음으로 수출 계약을 따낸 후 계약서 작성, 무역 서류 준비 등의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환경산업기술원의 '해외진출컨설팅 사업'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별다른 문제 없이 수출 업무를 진행했다. 한국무역협회의 수출 관련 무료 상담도 든든한 힘이 됐다. 그 결과 해외 기업으로부터 서류 대응 부분에서 'A++'라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기업 규모가 작거나 인프라가 부족해서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생소한 공기기술 분야를 개척한 올스웰. 그들의 거침없는 행보는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많은 귀감이 될 것이다.

(주)올스웰 기업 현황

업종 또는 업태
공기기술 엔지니어링, 집진설비 제조업

사업 규모(2018년 기준)
매출액 11억1,700만 원

수익 구조
공간의 공기 질 설계에 따른 기술료 및 당사 공기정화 시스템 판매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약 85%

주요 수출 및 해외 기술협약(2019년 기준)
중국 바오산강철 프로젝트 수주 및 완료(85만 달러)
중국 안산강철 기술협약서 체결(논의 중)
중국 수도강철 기술협약서 체결(논의 중)

"고맙지만 마음만 받으세요"

WTO 보조금-상계관세 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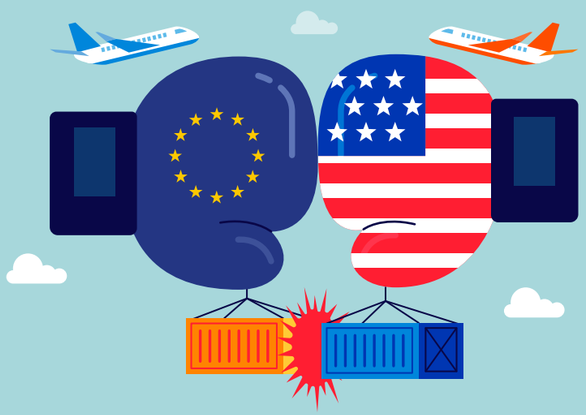
자유무역 시대는 곧 무한 경쟁 시대다. 정부와 기업은 이 상황에서 한 배를 타게 된다.
자국 기업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해외에 팔면 그 수입이 다시 국가의 부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기업을 지원할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셈인데, 대표적 형태가 바로 보조금(subsidy) 지급이다.

자료.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중국서 터지고 EU서 터지는 보조금 문제

미국과 중국 간 협상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출구를 암시하는 빛은 없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세로 전환하는 중국이다. 그러면서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폐지는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최근 양국 간 스몰딜 합의가 이뤄졌지만 농업, 지식재산권, 금융이 주요 합의 내용으로 보조금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알리바바나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무섭게 부상해 미국의 구글, 애플 등을 위협하게 된 배경에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국유기업에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원했고 이에 힘입어 이들이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중국만이 아니다. 최근 항공기와 관련된 WTO분쟁에서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과 그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며 미국이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EU에게 미국은 보복관세 부과도 시작했다. 연 75억 달러 규모 관세 부과로 EU산 와인과 치즈에 25% 관세가 추가되는 게 그 내용이다. EU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 역시 보잉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미국과 EU, 중국으로 이어지는 무역전쟁 트로이카의 핵심에는 보조금이 자리하고 있다.



보조금과 상계관세 조치

보조금의 종류는 다양하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예로는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보조금이 있다. WTO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공공 기관을 포함해 정부가 특정 상품의 생산, 제조, 분배 등 과정에서 금전적 기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금전적 기여는 직접적인 금전 지급뿐 아니라 세금 등 정부가 징수해야 할 대상에 대한 면제특권 역시 포함된다.

이렇게 보조금 혜택에 힘입은 기업과 산업이 이를 통해 자신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의 경쟁 기업과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 경우, 피해 국가는 상대 국가 보조금으로 인한 부정적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규범은 WTO 보조금-상계조치 협정에 명문화되어 있다. 특정국 정부의 금전적 기여를 보조금으로 정의 내리고 이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① 정부로부터의 금전적 기여가 존재할 것, ② 그 금전적 기여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이익이 발생할 것, ③ 이로 인해 수입 국가의 경쟁 기업이나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보조금 지급과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될 것이다.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피해를 입은 국가는 그 대응으로 두 가지 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 상계관세 부과로 그 효과를 상쇄하거나 ㉡ WTO 제소를 통한 해결이 그것이다.[1] 상계관세는 ㉮ 조사 개시(Initiation of Investigation), ㉯ 피해 판정(Determination of Injury), ㉰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 확인, ㉱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 ㉲ 상계관세 부과 및 징수의 단계로 진행한다.

보조금 축소, 사회적 합의 필요

정부가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시장을 개방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승자와 패자가 발생한다. 이는 필연이다. 정부 입장에선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상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불공정경쟁은 상계 조치라는 무역구제 조치의 한 갈래를 통해 반대급부를 맞게 된다. 상계관세 조치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철폐는 곧 공정경쟁의 시작이 된다. 미국은 중국에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의 형태 중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 바로 농업보조금과 최근 자주 거론되는 수산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농업보조금은 WTO 보조금-상계조치 협정이 아닌 농업협정(WTO Agreement on Agriculture)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고, 그 분류도 ①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와 ② 수출보조(Export Subsidy)로 나뉘며 위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된다. 농업이 지닌 민감성 때문일 테지만 역시 확대보다는 축소가 합의의 목적지고 실제 수출보조금은 2013년과 2015년 WTO 각료 회의에서 합의를 거쳐 철폐되었다. 수산보조금은 수자원 보호를 통한 환경 보존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근 WTO에서 열띤 논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가시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역시 어업에 대한 회원국 보조금을 축소·철폐해 무분별한 어획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래저래 보조금은 종류 및 목적과 관계없이 지양되고 있다. 농업과 수산업 분야 보조금까지 대폭 축소될 때, 비로소 모든 산업에서 자유무역과 완전경쟁의 문이 열리겠지만 이는 사회적 합의가 따라야 하는 만큼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무역 지식인'이 되기 위한 체크리스트

- 1월 GATT·WTO 체제에서의 무역 ☑
- 2월 최혜국대우 ☑
- 3월 내국민대우 ☑
- 4월 GATT·WTO 분쟁해결제도 ☑
- 5월 동식물 위생 조치 ☑
- 6월 무역 기술 장벽 ☑
- 7월 서비스 무역 ☑
- 8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
- 9월 무역 관련 투자 조치 ☑
- 10월 반덤핑 ☑
- 11월 보조금·상계관세 ☑
- 12월 세이프가드 ☐

보조금의 종류

WTO 협정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는 ①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②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③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흔히 신호등의 빨간불, 노란불과 초록불에 비유되곤 한다.

① 금지보조금
부속서(Annex I)에서 정의하고 있다. 무역에서의 왜곡 효과가 가장 큰 보조금을 말하는데,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장려하거나 수입품 사용을 지양하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나 산업의 수출 실적에 따라 보상처럼 지급하는 직접 보조금이나, 수출과 관련된 세금의 완전한 면제 및 일부 감면 등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면 수입 국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조치가능보조금
보조금 지급으로 특정 국가의 산업에 피해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거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대응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조금을 말한다. 상기 금지보조금과 달리 보조금의 종류 자체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부정적 효과에 대해선 제5조(부정적 효과)에서 나열하고 있다. 쉽게 말해 무역 상대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확인되었을 때, 그 내용은 차치하고 그로 인해 국내 산업이나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보조금을 일컫는다.

③ 허용보조금
한마디로 선의의 목적을 지닌 보조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산업 또는 기업과 관계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금전적 보조나 유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정부의 연구개발(R&D) 보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무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계관세의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보조금의 정의를 허용 단계로 내리고 인정받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일까, 허용보조금은 1999년 12월 31일 종료되고 연장되지 않아 현재는 지급할 수 없는 형태의 보조금이다. 결론적으로, WTO 보조금-상계조치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보조금의 형태는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 두 가지만 남아 있는 상태다.

1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지 4월호 '무역지식인' 참고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라면 무역조정지원사업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돕는다.

자료. FTA 강국, KOREA(www.fta.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융자부터 컨설팅까지…
FTA 피해 기업 재기 돕는 무역조정지원사업

FTA 한계 극복하고 자국 기업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

우리나라는 세계의 교류 물살에 맞춰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다. 현재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및 연합은 총 16개며, 그밖에 7건을 추가로 협상 중이다. 그러나 FTA로 인한 활발한 수입 활동은 자국 산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무역조정지원사업으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2년 이상 운영한 제조업·서비스업 업체 중 매출액, 생산량,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무역조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①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구분	피해 인정 기간	피해 정도 및 비교 시점
무역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6개월간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한 경우
무역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6개월간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② 기업의 주생산 품목과 동종 제품·대체 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수입 증가

동종 또는 대체 가능한 제품(서비스)	수입 증가
• 판단기준: 용도, 유통경로, 물리적 특성(구성 요소), 품질, 관세품목분류번호(HS코드), 대체 사용 가능성 등	• 관세품목분류번호(HS코드) 6~10단위 기준 • 해당 HS코드의 관세율이 FTA 발효에 따라 인하 또는 철폐 • 수입량이 FTA 체결 후 10% 이상 추세적으로 증가

지원절차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융자·컨설팅)

신청(기업) > 신청서 작성 지원(중진공) > 무역 피해 판정(중진공)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 > 융자·컨설팅 연계 지원(3년간) *융자 지원 전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 必(중진공)

•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 지원(컨설팅)

신청(기업) > 신청서 작성 지원(중진공) > 무역 피해 판정(중진공) > 사전진단 및 수행계획 적합성 평가(중진공) > 컨설팅 지원(중진공)

피해 기업에 융자 지원과 컨설팅 지원을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융자 지원과 컨설팅 지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융자 지원은 기업의 신청 후에 평가를 거쳐 중진공의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대출 중 결정된다. 융자의 범위는 생산설비와 장비도입, 유통, 토지 구매 등에 사용되는 시설자금과 기업경영에 쓰이는 운전자금으로 나뉜다. 시설자금은 연간 60억 원 이하,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2.0% 고정이다.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컨설팅 지원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무역조정 상담을,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해 무역 피해 판정을 받은 기업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을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비용은 전체 상담비의 80%며, 무역조정 상담의 경우 3년 동안 1억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경영안전 및 경쟁력 확보 상담의 경우 1회에 한해 4,000만 원 이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및 전국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시장 개척에 앞서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Q

저희 회사는 글로벌 경제 속 새로운 무역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수출하려면 서류부터 통관절차까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customs.go.kr)

기업의 수출 도우미, AEO 제도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받게 되면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간 활발한 교류와 무역 속에서 '무역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가 만든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는 무역업체에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등 많은 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4월 AEO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인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입니다. 공인 심사 후에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4가지 기준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관세행정상 혜택이 차등 적용됩니다.

AEO 공인으로 국내외 통관을 신속하게

무역 시장의 확대와 함께 거래 업체를 선정하는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AEO 공인이 있다면 보다 쉽게 안전성과 신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수출 경쟁력을 높입니다. 통관문제는 민간이 통제하기 힘들고 수출국 현지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물론 국가별 관세행정이나 물류 인프라 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기업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AEO 기업들은 수출 시, 국내 통관검사를 생략하는 등의 혜택이 있고 AEO 제도를 시행하는 타 국가와 MRA(국가 간 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한 경우 해외 수입통관에서 우선 검사를 받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무역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각종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정기점검과 심사로 신뢰도 상승

AEO 공인을 받은 업체가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인 후 갱신 기간까지 각종 변동 사항을 보고하고 자체 정기점검과 종합심사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공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5년이며 이 기간 이후에도 공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50여 개의 AEO 공인 기업이 있습니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라면 누구나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와 한국AEO진흥협회 홈페이지(ae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Step 01: 공인기준 결격사유 존재 여부 확인
- Step 02: 공인기준에 따른 자체평가 (SA; Self Assessment) 실시
- Step 03: 자체평가결과 충족 여부 확인
- Step 04: 수출입관리 현황설명서 작성 및 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 예비심사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

심사절차

- Step 01: 공인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서류심사
- Step 02: 서류심사 통과 업체 현장심사
- Step 03: 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인 여부 및 등급 결정
- Step 04: AEO 공인

MRA 체결국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대만, 태국, 호주,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페루,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AEO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한국AEO진흥협회 홈페이지(aeo.or.kr)

세계가 곧 나의 무대, K뮤지컬의 재탄생

재해석과 현지화로 K뮤지컬 한류 '날갯짓'

한류 하면 K팝이나 드라마, 영화를 먼저 떠올리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해외에 성큼 발을 내디딘 또 다른 분야가 있다. 바로 뮤지컬이다. 이른바 'K뮤지컬'이라 불리는 한국의 뮤지컬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외 팬을 감동시키는 한류가 되었을까.

글. **정덕현** 문화평론가

얼어붙은 국제정세 속에서도 타오르는 K뮤지컬

사드 정국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최근 수출 규제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린 국제정세가 한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보란 듯이 중국과 일본에서 여전히 사랑받는 한류가 있다. 바로 K뮤지컬이라 불리는 한국의 뮤지컬이다. 예를 들어 국내의 뮤지컬 한류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왕용범 연출가의 <프랑켄슈타인>은 2017년 1~2월 도쿄를 비롯해 일본 4개 도시에서 토호와 호리프로 공동 제작으로 공연했다. 또 씨에이치 수박의 <빨래>는 2017년 6~7월 베이징에서, 제작사 라이브의 <마이 버킷 리스트>는 2017년 8월 상하이를 거쳐 베이징 무대에 올랐다. 최근 더 악화된 한일 관계는 이미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아베 보수 정권의 등장으로 급격히 냉각됐다. 2016년 사드 배치 논란이 불거지면서 침체된 한·중 관계로 인해 중국 내 한류의 흐름은 전면적으로 막혀버렸다. 그러니 이 와중에 K뮤지컬이 지속적으로 양국 간 교류의 물꼬를 트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중국은 K뮤지컬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K뮤지컬 로드쇼'에는 <목 짧은 기린 지피>, <무한동력>, <식구를 찾아서>, <신과 함께>, <인터뷰>, <팬레터> 등 6개 작품이 소개되며 중국은 물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창작 뮤지컬 <팬레터>는 대만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며, 2020년 중국 공연을 목표로 중국 제작사와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또 2017년 사드 영향 아래 라이선스 공연을 펼친 <라흐마니노프>는 다시 중국 배우들이 출연하는 라이선스 형태로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했다. 왕용범 프로덕션이 만든 <프랑켄슈타인>과 <벤허>는 중국 투자사로부터 각각 100만 달러(약 11억3,0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K뮤지컬의 일본 시장 진출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마타하리> 같은 라이선스 뮤지컬은 오사카와 도쿄에서 선보였는데, 오사카 공연은 전체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2020년 재공연을 확정지었다.

K뮤지컬의 짧은 역사,
어떻게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렀을까

1995년 뮤지컬 <명성황후>가 예술의전당에서 초연하던 당시만 해도 국내 뮤지컬은 전혀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초연이 호평을 받고, 1997년에는 뉴욕주립극장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면서 한국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뮤지컬의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으로 많은 이가 동방신기 출신의 김준수를 꼽는다. 2010년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분쟁을 겪으면서 방송에서 보기 어려웠던 김준수가 뮤지컬 <모차르트> 무대에 서자 일본 팬들이 그를 보기 위해 서울까지 원정을 온 것. 이후 한국 뮤지컬 제작사는 해외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K팝 아티스트들을 뮤지컬에 캐스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11년 일본 제작사와 손잡고 만든 <궁>, <미녀는 괴로워>에는 각각 아이돌 그룹 초신성의 성모, 카라의 규리 등 아이돌 스타가 캐스팅됐다. 이후 2012년에는 일본에 한국 뮤지컬이 7편이나 진출했고, 심지어 전용 극장까지 생기는 등 K뮤지컬이 급성장했다. 2013년에는 무려 18편의 작품이 일본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국내 창작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 중국 라이선스 투어 공연 포스터
이미지 제공: SAIC·상하이문화광장

국내 창작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 2019 상하이 공연 사진 이미지 제공: SAIC·상하이문화광장

하지만 K뮤지컬의 장밋빛 미래는 높은 티켓 가격과 스타 마케팅 상술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거품이 빠졌다. 점차 일본 공연 뮤지컬 편수는 줄어들었고, 2016년에는 다섯 편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K뮤지컬의 추락과 함께 사라진 거품은 결과적으로는 약이 됐다. K팝 스타 팬덤에 의지하던 방식에서 작품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국내 소극장 뮤지컬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빨래>는 2012년부터 라이선스 뮤지컬로 일본에서 공연되어 큰 호평을 받았고, 2015년에는 일본 30여 개 지역의 공연장 투어도 이루어졌다. 이로써 <빨래>를 보러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까지 생겨났다. 현지 배우가 참여하는 라이선스 공연은 K뮤지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K뮤지컬이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K뮤지컬의 경쟁력 중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우리 식의 재해석과 현지화 전략이다. 즉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뮤지컬의 성지 브로드웨이에서 1997년 처음 막을 올렸지만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 식으로 재해석한 <지킬 앤 하이드>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역수출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즉 뮤지컬은 재생산과 재해석, 재가공을 통해 또 다른 작품으로 인정받는 특징이 있다.

이런 재해석은 현지 배우를 기용하는 라이선스 공연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K뮤지컬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또한 K팝 스타를 기용한 공연 또한 K뮤지컬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시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는 일본어로 하는 라이선스 공연과 한류 스타를 기용한 공연을 동시에 무대에 올렸다.

재해석과 현지화 전략은 사드 정국이나 수출 규제 등으로 국제정세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K뮤지컬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라이선스 공연의 경우 물론 우리 제작진이 투입되지만 현지 배우가 참여하기 때문에 현지인에게 이질감이 거의 없다. 이처럼 K뮤지컬은 해외 투자와 국내 제작진의 참여로 이뤄지는 상호 시너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김종욱 찾기> 같은 작품이 <쉰자오추롄(尋初戀, 첫사랑 찾기)>이라는 중국어 라이선스 공연으로 안착된다거나, <프랑켄슈타인> 등의 해외 원작을 재해석해 무대에 올린 뮤지컬을 해외에 재수출하는 방식은 K뮤지컬이 경계 없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K뮤지컬이 모색한 이 길은 여타의 한류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통상

나는 지금 여기 치앙마이 '아재로드'

태국 제2의 도시로 불리는 치앙마이는 태국 문화의 원류로 손꼽히는 지역으로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저렴한 물가에 훌륭한 자연경관까지 품어 전 세계 여행객이 찾는 최고의 관광지다.
그러니까 치앙마이로 떠나라? 아니. 그렇게 한 번 왔다 가는 관광지로 끝내기엔 치앙마이는 너무 아까운 도시다.

글. **김기석** brunch.co.kr/@kisukkim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아재'라고 불리는 나이. 무엇을 봐도 설레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재미가 없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무작정 떠나기로 결심했다. 젊음의 도시, 치앙마이로. 참 오랜만의 선택이다. 어느 날부터 선택지가 줄어든 삶, 이미 다 결정되어버린 '아재'의 삶에서 벗어나 꿈을 가득 안고 여행을 떠났다.

젊음이 진수성찬이 되는 곳, 치앙마이 대학교

모든 관광지가 다 그렇듯 치앙마이도 유명한 맛집이 한 집 걸러 하나씩 있다. 그런 맛집을 뒤로하고 치앙마이 대학교의 학생 식당으로 향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치앙마이 대학생은 교복을 입는다.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만나는 태국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교복은 대학생, 지식인, 중산층 이상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돌아가고 싶은 나의 20대로 보일 뿐이다. 학생 식당으로 들어가니 학생들이 나를 힐끔거리며 쳐다봤다. 반대로 나는 그들이 먹는 모습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먹느냐고 물으니 "아이 캔 낫 스피크 잉글리시" 하며 자기들끼리 깔깔 웃었다. 맛있냐고 묻자 "예스, 예스" 하며 또 웃음을 지었다. 같은 동양인인데도 외국인이 말을 건넨 것이 신기해서 웃는지, 그저 내 모습이 재밌어서 웃는지 알 수 없지만 말만 건네면 까르르 웃는다.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25 바트(약 960 원)의 쇠고기 국수를 먹는 내내 이곳저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런 곳이 진짜 맛집이 아닐까? 함께 도란도란 웃으며 한 끼 배부르게 먹는 곳. 내게 치앙마이의 맛집을 추천하라고 하면 단연코 치앙마이 대학교 학생 식당을 꼽겠다.

'처음엔 참 젊구나 느끼다가, 갑자기 젊어서 좋겠다고 서럽게 부럽다가, 결국엔 이녀석들아 너희도 곧 늙는다고 기분 좋게 마무리. 혼자 깔깔깔.'

요가원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다

치앙마이의 재미 중 하나는 골목 곳곳에 숨어 있는 요가원을 찾아다니는

태국 경제 개관
(2018년 기준, IMF)

인구
약 6,918만 명
GDP
5,050억 달러
1인당 GDP
7,274달러
GDP 성장률
4.1%
교역
4,950억 달러
- 수출 : 2,501억 달러
- 수입 : 2,449억 달러

THAILAND, CHIANG MAI

일이다. 남자로 태어나 여러 지역을 유랑하며 도장 깨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요가원을 찾아다니는 일도 꽤 재밌었다. 배가 나와 몸이 잘 접히지 않고 손끝과 발끝이 너무 먼 내게는 그 공간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도장 깨기 이상의 용기가 필요했다. 한국의 요가원에는 왠지 날씬한 사람만 가득할 것 같지만, 세계인이 모이는 이곳 치앙마이의 요가원은 다르다. 저마다의 복장과 저마다의 몸매와 저마다의 땀 냄새.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 요가 매트 위에 펼쳐졌다. 마치 요가원의 매트가 해적선에나 있을 법한 보물 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가를 시작하기 전, 선생님이 간단한 설명을 했다. 요가의 시작과 끝은 호흡이라고, 그 호흡은 자신을 만나러 가는 통로라고 말했다. 문득 내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나를 만나면 뭐가 달라질까?
뭐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걸까?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동료, 누군가의 친구,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연봉이 얼마인 사람…. 잠시 홀로, 자세를 멈추고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봤다. 각자의 매트 위에서 각자의 호흡으로 자신을 만나러 가는 듯한 그들의 모습을 보니 드디어 내가 보였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 그냥 나 자체가. 마침내 내가 찾던 나를 이곳에서 만났다.

싫다고 피하면 만날 수 없는 것의 가치

치앙마이에는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가 있다. 수채화, 요리, 판화, 도자기 등 관광지 체험 이상의 클래스가 존재한다. 나는 수채화 클래스를 선택했다. 낙서하듯 종종 그림을 그렸지만 수채화는 언제나 어렵게 느껴졌다. 선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물과 색을 제어해야 하는 피곤함이 싫었다. 왠지 어쩌다 섞여 나오는 것 같은 결과물이 싫고, 덧칠하는 그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채화 클래스에 나를 던져봤다.

수채화를 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해보고 싶었다. 기계처럼 뭐든지 정확하게 해야 하고, 싫어하는 것은 피해버리는 내 삶에서 벗어나 물에 물 탄 듯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었다. 하얀 도화지에 물을 바르고 그 위에 색을 올리면 물을 따라 색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색을 올리자 색과 색이 만나 또 다른 색으로 번졌다. 그 광경에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마치 방황도 반항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내 어린 시절을 만난 것 같아서다. 어느 것도 정해지지 않은 그 물과 색의 만남이 그 시절 나와 참 닮았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나는 얇은 펜 하나 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디테일에 목숨 걸며 '아재'가 되었을지 모른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월급쟁이의 나를 만나, 물과 색을 품은 붓 한 자루 손에 꼭 쥐어주며 한마디 하고 싶다.

"괜찮아. 용 쓰지 마.
그게 잘 사는 거야."

새로운 생각이 맺히는 만남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치앙마이에서는 언어 교류 모임이 열린다. 여러 국적의 꽤 많은 사람이 모인다. 다양한 관광객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과는 다른 이색적인 풍경이다. 생각의 결이 다른 문화가 한데 섞인 세상을 만나는 자리. 그들과 이야기를 하며 나의 생각은 모두 고정관념이었음을 느꼈다.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에게 나의 최대 고민을 물어봤다.

"너는 나이 듦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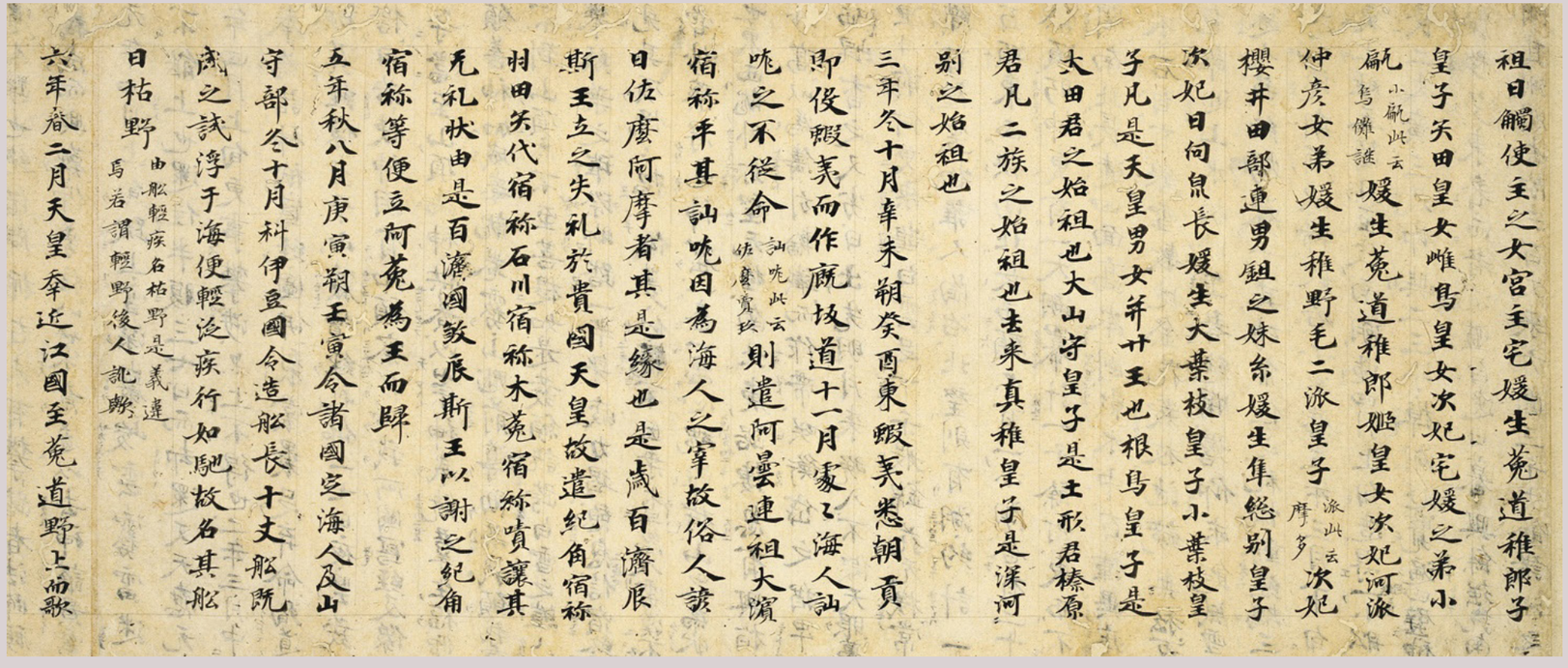
누군가는 나이에 따라 다른 재미가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 또 누군가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했다. 가장 재밌는 대답은 '늙어가는 것은 한계를 느끼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자신은 언제나 한계와 싸우는 중이라고. 사람들에게서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더 이상 나이에 주눅 들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다. 한 달 남짓 치앙마이의 시간 속에서 얻은 깨달음. 나이는 비록 청춘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아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치앙마이는 이런 곳이다. 내가 만나고 싶은 내가 있는 곳.

만남은 적었으나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

근대 이전 동남아시아 교섭사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는 현대에 이르러 공식 수교를 맺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문화 접촉 수준에서 머물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가 천년 이상 관계를 쌓아온 우리의 이웃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글. **김현경**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백제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물품과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간 기록이 남아 있는 <일본서기(日本書紀)> 출처: 위키피디아

기록에서 찾아보는 동남아시아의 흔적

가장 이른 기록으로는 백제와 일본 사이의 교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의 <일본서기(日本書紀)> 권19 '흠명(欽明) 4년 秋9月(543년경)'을 보면, 백제가 일본에 푸난에서 생산한 물품과 노예 2명을 바쳤다고 한다. 푸난은 현 캄보디아 남부와 베트남 남부 지역에 걸친 해양 왕국으로, 인도와 중국의 중계무역을 하던 나라다. 이 외에도 <일본서기> 곳곳에서 백제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물품과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간 기록이 남아 있다. 이로써 백제가 6세기경 동남아시아와 남중국해를 오가며 교류를 했던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의 공양왕대 기록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시암 왕국(현 태국)이 토산물을 바치고 서신을 고려에 보내왔다는 것이다. 당시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는 해상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하던 왕국으로, 일본과도 무역을 하는 등 한반도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 고려의 왕을 찾아왔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당시 고려는 쇠퇴하는 왕조였으며 새롭게 무역을 진행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시암 왕국의 사신이 방문했지만 교류에는 진전이 없었던 것이다.

조선 시대에도 동남아시아의 자취가 보이는데, 먼저 이전 고려를 찾아온 시암의 사신들은 조선이 다스리는 한반도에도 찾아왔다. 특히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방문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태조대 기록에는 시암의 사절단 내방에 대한 답례로 조선 사절단을 함께 시암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에서 도적의 습격을 받아 시암 조정으로 보낼 화물을 소실하는 바람에 사절단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야 했으며 이로 인해 시암과의 교류는 좌절되었다.

태종대에는 자바국 사람들의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1405년 조선에 바칠 토산물을 싣고 출발해 군산도 가까이에 다다랐다가 일본 해적의 공격을 받았으며, 그들이 타고 온 큰 배를 작은 배로 바꾸어 돌아갔다고 한다.

조선 중기 문인 이수광의 <지봉집(芝峰集)>에는 17세기 초 진주 사람 조완벽(趙完璧)이 베트남을 다녀온 이야기가 실려 있다. 조완벽은 일본 상인이 그를 베트남으로 데려갔다 온 이야기를 전했는데, 베트남의 복식, 교육, 기후, 농업, 가축 등 당시 부분적으로나마 베트남의 생활상을 담은 최초의 기록이다.

문화 접촉을 넘어 상생번영의 공동체로

위의 기록 외에도 동남아시아의 여러 왕조와 만난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교류했는지는 남아 있지 않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대 이전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의 관계는 문화 접촉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끊임없이 탐구해왔으나 직접적 관계는 맺지 못한 것이다. 물리적 거리라는 한계도 있었으나 비단 거리만의 문제는 아닐 터다. 당시 국제적 상황 그리고 전혀 다른 기후와 문화를 극복하지 못했기에 좀 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다.

최근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길거리에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음식점이 즐비하다.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K팝 등 한류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뿐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서 교류가 확장되고 있다. 근대 이전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의 한정적인 교섭사를 생각하면 수교 이후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의 관계는 가히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미래에는 동남아시아와의 교류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이웃을 넘어 절친한 친구와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을까. 통상

제조업 강국 독일과 협력으로 돌파구 찾는 소재·부품·장비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 세미나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고 일본의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행되는 등 국제사회의 무역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독 기술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과 독일, 기술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다

한국과 독일은 가슴 아픈 역사만큼이나 닮은 점이 많다. 전쟁 직후 한강의 기적과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으며 분단 경험을 공유하면서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한국의 유럽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양국의 산업구조 또한 유사하다. 두 나라 모두 세계가 인정하는 제조업 강국으로 제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 그 가치를 재인식하고 부흥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독일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8일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로운 협력 비즈니스 발굴을 희망하는 양국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세미나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한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크게 성장해왔으며 디지털 소재·부품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과 독일은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갈 믿음직한 파트너다. 이 자리가 양국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축사를 전하며 행사 시작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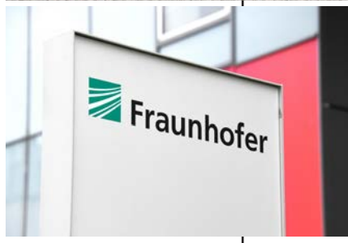
한독상공회의소 김효준 회장은 한-독 비즈니스 협력 특별 연설자로 나서 '한-독 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언했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으로서 대기업뿐 아니라 강소기업도 디지털화 전략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현지 상황을 전하며 "한국과 독일의 산업이 상호보완적인 만큼 파트너십을 강화해 기업인 간 교류를 늘리고 비즈니스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한-독 협력 사례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트렌드에 대해 양국 연사의 강연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연구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를 소개하며 "소재·부품·장비가 일반 국민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야였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이슈로 떠오른 만큼 산업적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부호무역 기조의 확산, 신흥국 부상 등 글로벌 산업·통상의 새로운 조류를 설명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을 기회로 자급화를 넘어 글로벌 강소 전문 기업이 창출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단에 선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섬유연구센터 김성룡 수석연구원은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섬유 산업의 국내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기술개발 동향을 짚었다. 전자부품연구원 디스플레이소재부품연구센터 한철종 박사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도전 과제와 함께 전자부품연구원과 독일 프라운호퍼 IAP의 공동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이 외에도 독일에서는 정밀기계 분야의 '리커만 코리아', 반도체 소재의 '한국머크', 정밀기계 분야의 '한국지멘스', 유럽 최대 응용기술 연구 기관 '프라운호퍼' 등의 관계자가 발표자로 나서 독일이 보유한 첨단 기술과 협력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한국 기업 및 기관과의 기술 교류를 제안하는 등 강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세 번째 세션 연사로 나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최홍열 국제협력사업 팀장은 한국과 독일의 공동 R&D 사례를 소개하며 양국 기업 간 다양한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소재·부품·장비 오픈 미팅 부스'를 운영해 독일 기업과의 네트워킹 및 기술협력 상담 기회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한-독 소재·부품·장비 분야 주요 협력 방안

구 분	주요 협력 방안
연구개발	공동 R&D 확대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과제 비중 확대(50%↑)
기술제휴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지원센터 개소
표준협력	한-독 표준협력대화 출범 및 표준포럼 개최
네트워크 강화	전문 연구소 및 경제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활성화

TRADE NEWS

2019 11월 | VOL.90

산업통상자원부 소식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타결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월 16일 인도네시아 탕그랑에서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한-인도네시아 간 CEPA가 실질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2018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CEPA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후 수차례 협상을 거쳐 실질 타결에 합의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신남방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더욱 성장이 예견되는 국가"라며 "어려운 시기에 신남방 핵심 국가를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CEPA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인력 이동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국제 분쟁 나눔포털 개설

산업부는 지난 10월 22일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disputecase.kr)에 '국제해양법재판소(ITOS) 판례 해설' 메뉴를 새롭게 개설했다. 이 포털은 지난 5월 개설해 △통상 분쟁(WTO)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일반 국제법 분쟁(ICJ, PCA, PCIJ) 등에 대한 사건개요 및 배경, 쟁점, 해설 및 평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국제법 분쟁 중 '국국제해양법재판소(ITOS) 판례 해설'은 해양 대륙붕 경계, 어업권, 해양환경 보호, 선박 나포 문제 등 판례 해설을 담고 있다. 영유권 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어 이번 정보 제공이 분쟁 담당자,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 한국산업대전 개최

산업부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2019 한국산업대전'을 개최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과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계류 종합 전시회로 올해 5회째다. 기계산업은 전체 수출의 8.8%, GDP 생산의 7%, 제조업 종사자 수 중 12%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중추 산업이며 반도체에 이은 수출 2위 품목이다. 개막식 행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우리나라 자본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업 및 유공자 49명에게 산업 훈·포장 등을 수여했다. 정승일 차관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인해 기존 국제분업질서에 더는 안주해서는 안 되고 고부가가치 밸류체인에 진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며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장비가 국산화되어야 하므로, 올해 내에 기계장비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해 현장 실증, 초기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 개최

산업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를 열었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총회는 2년을 주기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민간 재생에너지 콘퍼런스다.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에는 전 세계 108개국이 참여했고 특히 중국, 미국, 독일 등 59개국 정부 인사와 IRENA 등 19개 국제기구, 세계 28개 도시의 대표, 그리고 다수의 국내외 기업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인 혁신적 트렌드"라고 강조하면서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세 가지 혁신인 기술의 혁신, 시장의 혁신, 주체의 혁신에 대해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들이 각 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관세청 소식

수출입기업 위한 가이드북 발간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복잡한 수출입 통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작된 가이드북은 중소 수출입기업 등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 단계별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유의할 점, 세관의 지원제도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담았다. 통관 이전 단계에서 품목 분류에 대해 미리 세관 심사를 받는 방법, FTA를 활용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이나 통관 이후 단계에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 관세조사를 받을 경우 유의사항 등이다. 또한 기업이 가산세 절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협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반품환급 방법, 면세점 이용 시 주의사항 등 개인 통관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실려 더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북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의 민원부서를 통해 원하는 기업에 배포된다. 관세청 누리집, 전자국회도서관, 교보문고를 통해 e-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OTRA 소식

중동 최초 한류박람회 개최

KOTRA(사장 권평오)는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KOCCA와 함께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2019 두바이 한류박람회'를 개최했다. 한류박람회는 한류 마케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소비재·서비스 산업 분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 2010년 방콕을 시작으로 올해 16회째를 맞이하는 한류박람회는 중동 최초로 두바이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기업 132개사, 바이어 350개사 등 총 482개사가 참가하고 관람객 1만 명이 몰렸다. 중동 현지 수요를 반영한 한류 마케팅과 중동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에 맞춰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내년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수교한 지 40년이 될 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두바이 엑스포가 개막한다"며 "중동 최초 한류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소식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협의회 발족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0월 2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와 '제1차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협력 모멘텀을 활용해 에너지·교통·물환경·산업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 향후 양국 교류 및 경제협력 강화, 경제인 사절단·전시회·포럼 개최 지원, 무역·투자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및 투자 인센티브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진출 방안을 논의하는 양국의 민간 협력창구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뿐만 아니라 교통·물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 사례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상> 10월 독자 후기

통상 웹진(tongsangnews.kr)의 '독자 의견' 게시판에 이번 호 구독 후기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매월 5분께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드립니다. 또한 당첨된 독자 의견은 다음 호 <소통마당> 코너에 소개됩니다.

* 이벤트 선물은 익월 15일경에 발송합니다. 이벤트 당첨 여부는 개별 통지됩니다.

김○윤님

10월호 커버스토리를 읽으면서 가마우지 낚시에 비유한된 한·일 경제 구조 속 의존관계에 대한 비유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현 구조를 탈피하고,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며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모든 기업인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부품·소재 및 기술 독립을 통해 산업분야에서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김○준님

10월호는 '응답하라 무역정책' 기사가 좋았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거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막막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와의 협상부터 결제, 배송 등 온라인 수출 관련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중소기업에게 쉽고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희님

10월호 '마주보기'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를 통해 자립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말이죠.

박○규님

'집중 조명' 기사를 읽고 새로운 신남방 지역 국가와 산업별 전략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신남방 지역 가치사슬은 베트남에 의존하다가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활용하되 다른 국가와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합니다.

이○형님

'한류, 꽃피우다' 기사를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018년 '아이돌'이라는 곡에 마당극에서 들을 법한 추임새와 장단을 넣어 한껏 흥을 올리고, 뮤직비디오에서 개량 한복을 입는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한몫을 했다니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이렇듯 K팝에 국악을 접목한 형태 외에도 경기민요 전수자 히희문이 이끈 퓨전민요그룹 '씽씽밴드'가 국악을 팝(Pop)적으로 해석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주목받는다는 내용 잘 봤습니다. 한국의 흥이 외국인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네요.

通하는 낱말 퀴즈

참여 방법

통상 웹진(tongsangnews.kr)에 접속해 '낱말 퀴즈' 배너를 클릭하세요. ··· 이벤트 참여 시 선물 발송에 필요한 개인 정보와 가로세로 낱말 퀴즈 정답을 적어주세요. ··· 정답을 맞힌 독자 여러분 중 추첨을 통해 20분께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이벤트 선물은 익월 15일경에 발송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여부는 개별 통지됩니다.

① ○								
○		① ○	○	② ○	○	○	○	○
② ○	○			○				
○				○				
○				○				
				○				

가로 퀴즈

① 2018년 전 세계의 아세안에 대한 OOOOOOO(FDI)는 1,54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p 깊이보기)

② 1967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OO 선언'을 통해 아세안을 창설했다. (9p 깊이보기)

세로 퀴즈

① 우리나라는 2017년 OOOOO을 통해 아세안과의 외교를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선언했다. (15p 마주보기)

② 우리나라는 10월 16일 OOOOO와 포괄적경제동반협정(CEPA)을 실질 타결했다. (24p 집중조명)

바로잡습니다

<통상> 2019년 10월호 27쪽 '집중조명' 기사 중 '한국의 신남방 지역 가치사슬은 베트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가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를 '한국의 신남방 지역 가치사슬은 베트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최근 신남방 지역 가치사슬은 베트남뿐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로 정정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